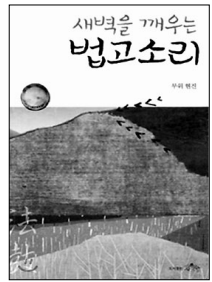


수행의 텃밭서 일군 30년 포교행

새벽을 깨우는 소리

무위 현진 지음 | 사유수 펴냄 | 1만5천원



서울 여의도 포교원장이자 언론인불자연합회 지도법사인 현진 스님이 최근 책을 펴냈다. 제목은 <새벽을 깨우는 밭고소리>이다. 에세이 형식으로 자신의 수행 여정과 그동안의 도심 포교 활동 등을 총정리했다.

현진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대중과 나누었던 강의 내용과 경전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 도심 포교 활동 과정 등 그동안 수행자로서 걸어온 길을 상세히 소개한다.

현진 스님은 머릿말에서 “부처님 품 안에서 50여년을 살아온 마음의 그림자와 업력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수행의 텃밭을 함께 일구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읽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출간 취지를 피력했다.

이 책에서 스님은 특히 포교사로 살면서

평소 불자들에게 강조한 부처님 10대 제자 이야기를 제 4장에 수록했다. 그중 두타행 제일이라 불리는 ‘마하가섭’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두타’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떨쳐내려는 수행 실천을 말하는데, 두타의 실천 항목은 대체로 12가지로 분류돼 그것을 12두타행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저자인 현진 스님은 이 책에서 “마하가섭은 이와같은 두타 수행을 했는데 이것은 모든 욕망을 버린 금욕의 성자상이요, 청빈한 생활을 의미한다. 붓다의 제자들 가운데 마하가섭이 뛰어난 것은 소유자족하며 오로지 수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이라고 소개한다.

가섭 존자는 사리불과 목련 존자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는 수행과 덕망 그리고 지혜를 겸비해 충분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스스로 도를 즐길 뿐 설법 교화를 일과로 하지 않았다고 저자는 덧붙인다.

저자는 또한 출가담과 함께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대중도심포교 운동에 첫걸음을 떤 계기도 소개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에 일어난 이른바 ‘10.27 법난’이 계기였다. 한국 불교계에 큰 수모와 상처를 안



무위 현진 스님

대중포교 법문 정리해 수록

부처님 제자 이야기도 실어

도심포교 첫 계기는 ‘10.27법난’

일본유학 법난 때문에 좌절

긴 이 사건 당시 저자는 일본 명월사에 머물며 대정대학서 수학중이어서 TV뉴스를 통해 접했다.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찬 저자는 한국에 나오자마자 유린당한 불교의 현장을 둘러 보았다. 이후 다시 불학 공부를 위해 일본에 가려 했지만 조계종 승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결국 꿈을 접어야 했다.

저자는 “그 일로 실의에 빠졌지만 오히려 희망이 사라진 불교를 되살려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게 생겨났다”며 “나락으로 떨어진 불법과 승가를 살리려면 불교를 억압하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참불자들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껴 대중포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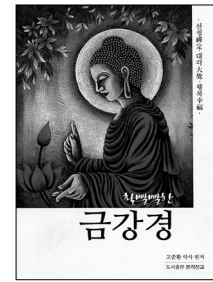
한편 현진 스님은 1966년 양명 용문사에서 입산 출가해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했으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불교문화사업단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일본 유학서 돌아와 1980년대 초반 여의도에 포교원을 세우고 도심 포교에 앞장서왔다. 또한 사단법인 월드미시 코리아 대표이사도 맡아 아시아 국가들의 학교와 화장실 건립, 식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다양한 시각에서 본 금강경 ... 새로운 방식으로 뜻 풀이 ‘신선’

활발한 금강경

고준환 박사 편저 | 본각선교 펴냄 | 1만 4800원



<금강경>은 원래 금강야바라밀경이라고 한다. 금강석과 같이 모든 번뇌를 능히 끊는 다는 의미가 담긴 광명의 대승경이다.

인도 사위국을 배경으로 한 이 경전은 제자 수보리를 위해 설한 경전으로, 한곳에 집착해 마음 내지 말고 항상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양으로 부처를 보지 말고 진리로서 존경하며, 모든 모습은 모양이 없으며 이렇게 본다면 곧 진리인 여래를 보게 된다는 게 핵심이다. 이 경은 산스크리트 원본도 현존하며 한역 6가지 외에 서양어도 있으며 최근에는 영어·독일어·프랑스어 등으로도 번역돼 서양학계에도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이다. 또한 이 경에 대한 주석서는 인도·중국·한국·티베트 등에 걸쳐 800여 가지가 넘으며 불교의 모든 학파를 막론하고 이 경에 대한 관심은 크다. 그것은 바로 이 <금강경>이 적절한 분량으로 읽기게 쉬우면서 깊은 대승불교의 진수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정각한 이후 47년간 자비와 선교일치로 설한 범종 가장 오랜기간인 21년간 펼치신 법이 반야부(지혜부)이고, 그 가운데 깨달음과 실천의 핵심 경전이 쌍둥이 금강경인 <금강반야경>과 <금강삼매경>이다. 이외에도 밀교의 3부 경전중 하나인 <금강정경>도 있다.

최근 <활발한 금강경>을 펴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는 “불자로서 깨달음을

이르기 위해 금강경을 공부하고 선정 등을 실천해 금강정에 들어 마음살림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금강경의 뜻을 일목요연하게 풀이하고, 한국 현대 대선사 7분(경허 한암 탄허 만공 원담 동산 상철 등)의 활발한 선적 삶을 살피며 선교 접점을 통해 활기있고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책 제목인 ‘활발’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뛰어오르듯 살아 숨신다는 선어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금강반야경을 한글과 한문, 영어 등 세 언어

한국 현대 7대선사 선수행 소개

생활속 금강경 강좌 내용 요약도

로 옮겼다. 이어 2부에서는 <금강삼매경>과 현대의 7대 선사들에 이어 3부는 김선형 정천구 유종민 정재택 정대구 최동락 교수 등이 쓴 ‘금강경과 생활철학’에 대해 실었다. 2부인 ‘금강삼매경과 현대의 대선사들’은 금강삼매경과 원효 스님의 금강삼매경론의 중복을 피해 약술하고, 7대 선사에 관한 글을 차례로 기술했다.

또한 제 3부인 ‘금강경과 생활철학’은 본각선교원의 인기강좌인 ‘생활속의 금강경 강좌’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된 것을 상재한 것이다. 특히 제 3부는 정치, 문화, 경제, 경영, 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금강경과 각 분야에 나타난 관련성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풀어 내 자못 흥미롭다.

김주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집착의 불꽃이 사라질 때가 평화의 시발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가들이 이단이라하며 심판의 칼을 세울 때도 붓다는 인간을 품어 길을 가르쳤을 뿐 이단에 대한 심판의 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붓다의 역사는 오직 사랑에 대한 사랑이요, 중생에 대한 연민입니다. (붓다의 품에 안겨라 중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물건이 일체의 요구와 편견없이 하는 보시를 청정 보시라 합니다. 청정보시아말로 최상의 보시요,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는 지름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멈춰 생각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걸 압니다. 한 물건도 가질 수 없음을 압니다. (청정한 보시를 행하라 중에서)

▲붓다는 말씀하셨다. 사랑과 연민의 자비실천이아말로 삶을 사는 생명의 가치라고 하신다. 자비의 실천은 대결이나 투쟁이 아닌 자타의 합일 정신이다. 합일 정신은 열린 지견의 비약 없이는 불가능하다. 스스로를 정화하며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와 용서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중에서)

▲삶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이란... 항상 무엇인가를 주려고 배우려고 희망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서원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다. 삶이 건강한 사람,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 중에서)

새로나온 책

“ 암자 뒷산을 오르는 고갯길 언덕에 혼자서 매일 천년 기도하는 돌부처 돌부처 얹은 둥근 방석 위에는 가슴 속에 실같은 속소리 푸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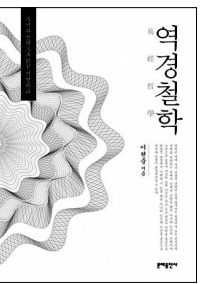
《시가 자라는 바다》 중 최만조의 ‘돌부처’

불심으로 빚어낸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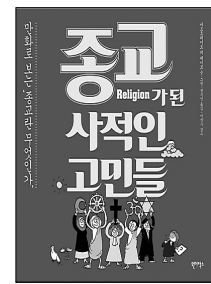
◇시가 자라는 바다는 한국불교아동문학회가 펴낸 연간시집이다. 회원 58명의 동시 108편과 단편동화 22편을 한 권에 묶었다. 책 속에는 불교아동문학자들 담겨 ‘꼬마스님 ‘돌부처’ ‘목탁소리’ ‘축서사 물이끼’ 등 불교 소재 시들이 많이 들어 있다. 또한 책 끝머리에는 한국 불교아동문학회의 창립에서 오늘까지란 부제로 30회의 어린이 글짓기 시상 내용과 <본생경 개작 동화집> 등을 간행해 온 약사를 곁들이고 있다. (불교아동문학회 엮음/대양미디어 펴냄/254쪽/1만원)

주역과 정역으로 풀이한 역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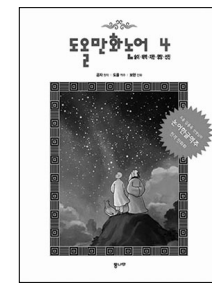
◇역경철학=그동안 역학은 <주역>을 중심으로 연구돼 왔다. 내용의 측면에서 패효사와 심익을 구분해 점서(占書)와 철학서로 보거나 형식에 따라서 상수역학과 의리역학으로 구분해 어느 일면을 부각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역학을 연구하면서 <주역>은 물론 조선 말기 유학자인 일부(一夫) 김향이 저술한 <정역>에 역학의 근본원리가 담겨 있음을 파악하고 두 권의 전적을 바탕으로 새롭게 역학 사상을 조명했다. (이현중 지음/문예출판사 펴냄/488쪽/3만원)

올바른 믿음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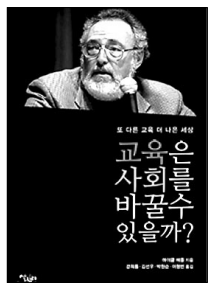
◇종교가 된 사적인 고민들=이 책이 이야기하고 싶은 큰 줄기는 종교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올바른 믿음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다. ‘건강한 생각’과 ‘가치관’을 이끌어 내며 이는 삶의 태도와 직결된다. 저자 마르그레이트 데 헤이르는 말한다. “인생에 깊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는 곧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무조건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탐색하고, 발견하고, 포용하고, 의문을 갖고, 또 거부하는’ 과정이다. (마르그레이트 데 헤이르 지음/원더박스 펴냄/128쪽/1만 3천원)

만화로 쉽게 풀이한 논어



◇도올만화는어4=이 책은 도올 김용옥의 <논어한글역주>를 저본으로 삼아 만화작가 보현이 그려낸 만화다. 시대를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경전인 <논어>의 499장 전체를 쉽게 풀어냈으며 원문을 낱말이 번역하고 한글 발음과 함께 실었다. 이 책은 <논어>가 쓰인 시대상황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고, 아울러 정제된 언어와 감각적인 구성으로 전달되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인간적인 면모도 엿볼 수 있다. (도올 역주/보현 만화/홍나루 펴냄/243쪽/1만 2900원)

교육은 사회 변화시키는 무기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실천 교육학의 세계적 석학 마이클 애플이 들려주는 더 나은 교육에 관한 이야기다. 세월호 참사는 왜 내가 제기한 주장들이 한국적 맥락에서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준다. 이 참사는 우리가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반체제 운동들을 조직하고 지키는 일을 반드시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교육은 그러한 운동을 조직하고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저자의 메시지다. (마이클 애플 지음/살림터 펴냄/352쪽/1만 6천원)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원효종

중정설재정광

원로원장 창해 중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일륜 총무부원장 보원

원로위원 진덕, 수진, 수경, 각운, 성호, 혜담

중회부부장 자안, 보광

중회의원 법진, 무상, 혜성, 자광, 상도

재산심의위원장 자연 법규위원장 무상 고시위원장 자광
중학원장 옥천 포교원장 선운 의전실장 석해

부산교구원장 석불 경북교구원장 법진 대구교구원장 서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제주교구원장 법원 경기교구원장 해인 전남교구원장 마명 충남대전원장 자성
전북교구원장 경오 경북북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사회부장 능관 재무부장 천수 교육부장 유상 문화부장 대호
복지부장 원해 포교부장 성우 규정국장 남주 조사국장 최석주

대한불교 원효종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종도 여러분은 이제 대한불교 원효종을 참칭하고 있는 단체에 현혹 되지 말고 원효종의 중지 중현을 개승하고 있는 우리 종단을 위하여 모두가 일심하여 종단을 발전 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탑동 344-2) 전화 054)743-0700 / 팩스 054)741-9002

현대불교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총무원장 혜상

종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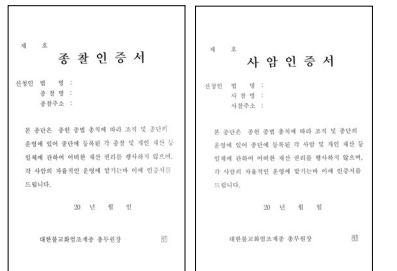
입종안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흥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입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礙)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시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상은 개인자상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 종단입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장 혜상스님께 문의 바랍니다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장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총무원 054)632-2799, 010-5228-7813